

#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

## Developmental Changes of Adolesc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장은지,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un-Ji Jang(noorivv@hanmail.net), Eun-Sil Choi(ces726@catholic.ac.kr)

### 요약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생 2,260명을 대상으로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 성격특성에 발달적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성격 5요인의 발달적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더불어 신경증 하위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 시기와 특성을 확인 하였다. 분석에는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난 경우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격 5요인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경증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격 5요인 특성 모두에서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기 성격특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학년별 발달적 경향성에서도 성별 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분석에서 남자는 중등 2학년, 여자는 고등 3학년에서 성격특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경증과 관련된 외현화 행동문제는 중등 1·2학년에서 내현화 행동문제는 고등 3학년에서 주로 발현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상이한 정신건강문제가 발현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Big 5 | 성격특성 | 성격발달 | 청소년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adolescent personality regarding personality traits of Big 5 model in 2,26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al change of personality 5 factor according to sex and grad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timing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by analyzing the sub - factors of neurosis. Analysis was used for One-Way ANOVA. if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s we proceeded post hoc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ve personality traits of the adolescent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The girls were higher than boys in the Openness, Conscientiousness and Extraversion. In contrast, the boys were higher than girls in the Neuroticism.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five personality trait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grade. Third, Gender-specific developmental grade tendency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ersonality trait shows a different pattern in gender. Especially, in the analysis by gender and grade boys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prominent in the middle school Grade 2. likewise, girls showed that personality traits prominent in the high school Grade 3. Then, associated with Neuroticism th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as found to be expressed in the middle school Grade 1 and 2. likewise, th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as found to be expressed in high school Grade 3. Therefore, this study was able to determine the current developmental change in personality traits adolescence of our country. Also it found that mental health problems can be a different expression depending on gender and grade.

■ keyword : | Big Five | Personality Traits | Personality Development | Adolescent |

## I. 서론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어떻게 발달하여 언제쯤 형성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성격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성질로 여겨지지만 성격이 발달되는 동안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인간의 성격형성은 좌우 될 수 있다.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기는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고, 환경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일 것이다.

먼저 성격발달에 관하여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단계이론들에서 주로 반영이 된다. 단계이론은 그 정의상 성격의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이론이다[1]. 단계 이론가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 과업에 직면하게 되며, 그 과업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성격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하여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들의 성취 여부에 따라 성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격 형성은 21-30세 사이에 거의 완성된다고 보며[2], 이후 성격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 이전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발달적 과도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성인기의 성격형성과 적응력에 중요한 예측을 제공 할 수 있다[3].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생에 있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적 과정이며, 이러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 변화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 따라서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약하더라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적 변화를 하는 청소년기에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게 된다. 문제행동의 증가에는 개인의 기질 즉, 성격유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5] 청소년기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격특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청소년기의 적응, 학업, 문제행동, 정신병리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6]. 특히 청소년기에 정서·행동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매우 중요 한데[7], 청소년기의 비행은

청소년 개인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8].

## II. 이론적 배경

### 1. 성격 특성

성격에 관한 연구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특성이론과 다른 하나는 단계이론이다. 전자는 성격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틀이 있다고 보며, 성격특성이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로 구성되었는지를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발견 하게 된 대표적인 성격특성이 Big Five 성격요인(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이러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달하여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성격이론은 Allport, Lewin, Murrary 이 세 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9]. 특히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Allport의 업적으로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졌으며, 이를 특성연구가들이 물려받아 성격을 측정 할 수 있는 5요인의 특성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다[10]. 성격의 기본 5요인은 Goldberg에 의해 Big Five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Big Five 요인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는 신경증 성향(정서 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지성), 우호성(친화성), 성실성(성취에 대한 의지)으로 5요인을 지칭하고 있다[11][11].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한 정승철과 최은실의 '성격 5요인 검사(BFI-Big Five Inventory)'를 바탕으로 Big Five 요인을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으로 지칭하고자 한다[1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의 특성 중 신경증에 대해 좀 더 탐색해 보고자 한다. 신경증 요인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 있는 등[13], 부정적 감정들을 쉽게 경험하고 다양한 정신 병리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 5요인 검사(BFI)’에서도 신경증 요인에 포함되는 심리적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 양상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12].

## 2. 성격 발달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성격발달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단계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의 Freud와 Erickson이다. Freud는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통해 아동 초기에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성적욕망을 무의식의 주요 작동기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욕구가 집중되는 곳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등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욕구가 억압될 때 성격형성에 장애가 생긴다고 보았다. Freud가 생애 초기에 성격이 형성된다고 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러한 주제들을 아동기에 국한 시키지 않고 일생동안 걸친 변화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 한편, Eric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보다 자아의 기능을 강조한 사회적 발달단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Freud의 발달단계를 확장하여 Erickson은 성인기까지 발달의 8단계를 제시 하였다. 각 단계에는 심리적 과제가 주어지며 이 위기에 대응한 결과로 즉, 심리적 과제를 잘 획득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며 이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1].

이러한 단계를 걸쳐 형성된 성격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징이며, 일관성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격형성을 위해서는 환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의 성격심리학 연구에서는 유전적 기질 보다 환경이 성격형성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14].

## 3. 청소년기 성격발달의 경향성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15]. 이중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청소년기 동안 복잡하게 얽히며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전 생애 발달과정에서 볼 때 다른 시기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문제행동들이 발현되기도 한다[16].

현재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역할기대와 부담이 더 높아져 입시 위주의 과도한 학습량, 치열한 경쟁의식 조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중 2병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여, 청소년기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학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심리사회적 지지와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제안할 수 있고, 더불어 학교 차원의 학생상담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기 성격발달의 특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위해 학년뿐만 아니라 성별의 차이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 Big five 성격발달에서 성차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여자는 16세 때 우호성과 성실성, 개방성이 남자보다 높고, 남자는 반대로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이 여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남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성(신경증)과 외향성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청소년기를 초기(12.4세)와 중기(16.7세)로 나누어 Goldberg's(1992)의 Big Five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보면 성격 5요인 모두에서 발달적 변화를 발견 하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성차 또한 확인 하였다[19].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개방성의 경우 청소년기 동안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개방성이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실성은 청소년기 동안 가장 안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중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셋째, 외향성에서 보면 중기로 갈수록 남자는 외향성이 증가 하지만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우호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보통 여자가 더 높으나 중기로 갈수록 남자의 우호성이 증가하여 남녀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성(신

경증)을 보았을 때, 증기로 갈수록 성별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은 증가 하지만 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인 NEO-PI-R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서도 성격특성의 발달적 경향성과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0]. 중학생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신경증과 개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또한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발달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성실성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경증은 나이가 들수록 차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과 개방성은 연령과 더불어 낮아지고, 친화성(우호성)과 성실성의 척도는 연령과 더불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격특성의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발달적으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선 연구들에서 대상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연령의 범위가 넓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만 초점을 두고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격요인에서 신경증 요인과 관련된 정서적 불안정성은 청소년기 외현화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으며[21], 신경증 요인을 청소년기 정신건강상의 문제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미성숙한 시기로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문제행동들이 발현되고, 청소년기 흔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은 행동장애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다양한 외현적 행동문제로 표출되기 때문이다[16][22][23].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비행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25].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우울 및 불안의 성차는 중학교 1~2학년에서 발현되는데 여자의 우울과 불안이 남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성차가 사라

지는 것이 나타났다[26]. 이러한 청소년기 신경증 요인들은 학교적응, 학업성취, 스마트폰 중독 등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적응에 영향력을 주는 신경증 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소년기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성격발달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국 광역도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1·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참여에 대해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 한 후, 학생들 동의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성격특성을 알아보는 질문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시간은 25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회수 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전부 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설문지 226부를 제외 하고 총 2,260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분석 결과 성비는 남학생 928명(41.1%)이고 여학생 1,304명(57.7%)으로 나타났다. 학년 비는 중등 1학년 323명(14.3%)이고 중등 2학년 333명(14.7%), 중등 3학년 366명(16.2%)이었으며, 고등 1학년 396명(17.5%), 고등 2학년 413명(18.3%), 고등 3학년 400명(17.7%)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성격특성 5요인을 측정 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성격 5요인검사(BFI-Big Five Inventory)’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검사는 Big Five 성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적응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검사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특징으로는 성격에 대한 전반적 특성(개방

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추가적으로 청소년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건강(우울, 불안, 공격성, 산만성, 비행)의 어려움과 적응상태(학교 만족, 학업수행,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있다[12].

‘성격 5요인 검사(BFI)’의 청소년용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1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5요인 검사(BFI)’의 성격 5요인 문항은 개방성 20문항, 성실성 20문항, 외향성 20문항, 성실성 15문항, 신경증 25문항으로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형태는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사용된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격 5요인 검사(BFI)’의 성격 5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는 개방성(Openness) 하위요인으로 경험추구 .834, 미적개방성 .820, 상상력 .872, 지적호기심 .674로 나타났으며, 성실성(Conscientiousness) 하위요인으로 목표지향성 .827, 신중성 .746, 자기통제력 .779, 규칙준수 .781으로 나타났다. 외향성(Extraversion) 하위요인으로는 관계지향성 .835, 주장성 .789, 활동성 .844, 긍정정서 .805로 나타났고, 우호성(Agreeableness) 하위요인으로 겸손 .692, 타인존중 .766, 휴머니즘 .788 이며, 신경증(Neuroticism) 하위요인은 우울 .863, 불안 .723, 과잉행동 .692, 공격성/비행 .607, 충동성 .582로 나타나있다. ‘성격 5요인 검사(BFI)’의 하위요인 구성은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성격 5요인 검사(BFI)’ 청소년용 하위요인 구성 표

요인	하위 요인	
성격	o 개방성	경험추구, 미적개방성, 상상력, 지적호기심
	c 성실성	목표지향성, 신중성, 자기통제성, 규칙준수
	E 외향성	관계지향성, 주장성, 활동성, 긍정정서
	A 우호성	겸손, 타인존중, 휴머니즘
	N 신경증	우울,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충동성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성격 5요인의 발달적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성격요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Tukey HSD, Dunnett T3 방법을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에 따른 성격 요인의 차이

#### 1.1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 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M)	표준편차(SD)
o 개방성	남자	3.49	.61
	여자	3.62	.53
c 성실성	남자	3.47	.54
	여자	3.61	.52
E 외향성	남자	3.51	.64
	여자	3.60	.59
A 우호성	남자	3.52	.39
	여자	3.54	.35
N 신경증	남자	2.71	.49
	여자	2.61	.50

표 3.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수준	
O	그룹 간	8,958	1	8,958	27,632	.000
	그룹 내	716,452	2210	.324		
	총계	725,410	2211			
C	그룹 간	10,909	1	10,909	37,798	.000
	그룹 내	637,265	2208	.289		
	총계	648,174	2209			
E	그룹 간	3,848	1	3,848	10,130	.001
	그룹 내	836,670	2209	.379		
	총계	840,517	2210			
A	그룹 간	.205	1	.205	1,501	.221
	그룹 내	301,531	2210	.136		
	총계	301,736	2211			
N	그룹 간	4,822	1	4,822	19,344	.000
	그룹 내	546,230	2191	.249		
	총계	551,052	2192			

실시 결과 성별에서는 성격 5요인의 우호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방성(O)은  $F=27.632, p<0.001$  으로 나타났고, 성실성(C)는  $F=37.798, p<0.001$  이며, 외향성(E)는  $F=10.160, p<0.01$  으로, 신경증(N)  $F=19.344, p<0.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 보다 개방성(O), 성실성(C), 외향성(E)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여자 보다 신경증(N)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성(A)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성별에 따른 신경증 요인

성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 하였다.

실시 결과 신경증 요인에서 성별 간 차이는 불안과 충동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울은  $F=5.574, p<0.05$  으로 나타났고, 과잉행동은  $F=46.604, p<0.001$  으로, 공격성/비행은  $F=39.530, p<0.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울,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과 충동성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으나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M)	표준편차(SD)
우울	남자	2.10	.82
	여자	2.01	.80
불안	남자	3.03	.72
	여자	3.01	.74
과잉행동	남자	2.94	.69
	여자	2.73	.73
공격성/비행	남자	2.35	.66
	여자	2.17	.62
충동성	남자	3.12	.61
	여자	3.12	.59

표 5. 성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수준	
우울	그룹 간	3,691	1	3,691	5,574	.018
	그룹 내	1467,496	2216	.662		
	총계	1471,188	2217			
불안	그룹 간	.129	1	.129	.237	.656
	그룹 내	1209,291	2223	.544		
	총계	1209,420	2224			
과잉행동	그룹 간	23,919	1	23,919	46,604	.000
	그룹 내	1138,889	2219	.513		
	총계	1162,808	2220			
공격성/비행	그룹 간	16,274	1	16,274	39,530	.000
	그룹 내	916,834	2227	.412		
	총계	933,108	2228			
충동성	그룹 간	.001	1	.001	.004	.952
	그룹 내	807,836	2224	.363		
	총계	807,837	2225			

2. 학년에 따른 성격 발달적 변화

2.1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6]와 [표 7]에 제시 하였다.

표 6.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M)	표준편차(SD)
O 개방성	중1	3.54	.57
	중2	3.48	.60
	중3	3.54	.56
	고1	3.63	.54
	고2	3.53	.56
	고3	3.63	.56
C 성실성	중1	3.61	.56
	중2	3.52	.56
	중3	3.59	.55
	고1	3.59	.53
	고2	3.46	.49
	고3	3.55	.51
E 외향성	중1	3.70	.64
	중2	3.57	.57
	중3	3.56	.62
	고1	3.60	.62
	고2	3.51	.59
	고3	3.46	.60
A 우호성	중1	3.49	.36
	중2	3.48	.36
	중3	3.51	.33
	고1	3.60	.35
	고2	3.55	.37
	고3	3.56	.39

N 신경증	중1	2.69	.55
	중2	2.64	.52
	중3	2.60	.47
	고1	2.55	.49
	고2	2.64	.48
	고3	2.78	.45

표 7.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검증
O	그룹 간	6,732	5	1,346	4.127**	고3)중2
	그룹 내	719,445	2205	.326		
	총계	726,177	2210			
C	그룹 간	5,929	5	1,186	4.076**	중1)고2
	그룹 내	640,921	2203	.291		
	총계	646,850	2208			
E	그룹 간	12,295	5	2,459	6.546***	중1)고3
	그룹 내	827,917	2204	.376		
	총계	840,212	2209			
A	그룹 간	3,539	5	.708	5.233***	고1)중2
	그룹 내	298,231	2205	.135		
	총계	301,770	2210			
N	그룹 간	12,284	5	2,457	9.975***	고3)고1
	그룹 내	538,400	2186	.246		
	총계	550,683	2191			

\*\*\* $p < .001$ , \*\* $p < .01$

실시 결과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 하였다. 개방성(O)은  $F=4.127, p < 0.01$  으로 나타났고, 성실성(C)은  $F=4.076, p < 0.01$  이며, 외향성(E)은  $F=6.546, p < 0.001$  으로, 우호성(A)은  $F=5.233, p < 0.001$ , 신경증(N)  $F=9.975, p < 0.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의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Tukey HSD,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방성(O)은 고등 3학년이 중등 2학년과 가장 차이 났으며, 성실성(C)은 중등 1학년과 고등 2학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성(E)은 중등 1학년과 고등 3학년, 우호성(A)은 고등 1학년과 중등 2학년에서, 신경증(N)은 고등 3학년과 고등 1학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격 5요인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중등 1·2학년에서 개방성과 우호성이 낮으며, 외향성과 신경증이 다소 높은 것이 나타났다. 특히 중등 2학년에서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등 1학년에서는 개방성과 우호성이 다

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고, 신경증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고등 2·3학년으로 갈수록 외향성이 떨어지고 신경증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림 1-5]에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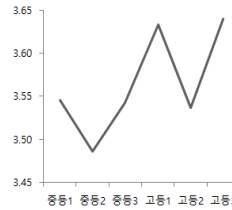


그림 1. O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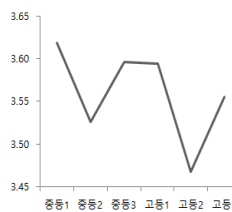


그림 2. C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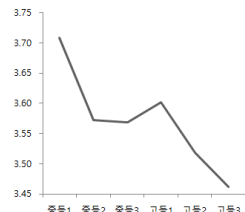


그림 3. E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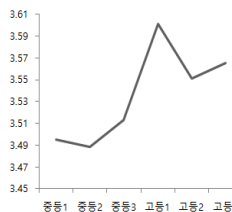


그림 4. A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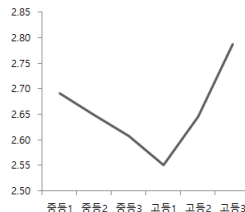


그림 5. N의 평균

### 2.2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와 [표 9]에 제시 하였다.

실시 결과 신경증 요인에서 학년 간 차이는 신경증 요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우울은  $F=11.052, p < 0.001$  으로 나타났고, 불안은  $F=15.818, p < 0.001$  이며, 과잉행동은  $F=6.603, p < 0.001$  으로, 공격성/비행은  $F=3.189, p < 0.01$  로, 충동성은  $F=7.794, p < 0.001$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의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Tukey HSD,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 모두 고등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과잉행동의 경우 중등 1·2학년이 고등 1·2·3 학년에 비해 높았으며, 공격성/비행과 충동성의 경우 중등 1학년, 고등 3학년이 고등 1학년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그룹 간	41,617	5	8,323	15.818***	고3) 중1,2,3 고1,2
	그룹 내	1167,133	2218	.526		
	총계	1208,750	2223			
과잉행동	그룹 간	17,069	5	3,414	6.603***	중1) 고1,2,3
	그룹 내	1144,666	2214	.517		
	총계	1161,735	2219			
공격비행	그룹 간	6,650	5	1,330	3.189**	중1,고3) 고1
	그룹 내	926,731	2222	.417		
	총계	933,381	2227			
충동	그룹 간	13,942	5	2,788	7.794***	중1,고3) 고1
	그룹 내	793,890	2219	.358		
	총계	807,832	2224			

\*\*\* $p<.001$ , \*\* $p<.01$

표 8.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M)	표준편차(SD)
우울	중1	1.98	.84
	중2	1.98	.82
	중3	1.98	.76
	고1	1.92	.74
	고2	2.10	.82
불안	중1	2.29	.82
	중2	2.95	.82
	중3	2.93	.75
	고1	2.94	.71
	고2	2.94	.69
과잉행동	중1	3.04	.71
	중2	3.30	.66
	중3	2.97	.78
	고1	2.92	.75
	고2	2.81	.71
공격성/비행	중1	2.71	.68
	중2	2.76	.70
	중3	2.77	.67
	고1	2.29	.68
	고2	2.27	.67
충동성	중3	2.20	.62
	고1	2.16	.63
	고2	2.25	.63
	고3	2.31	.63
	중1	3.23	.68
충동성	중2	3.10	.58
	중3	3.09	.60
	고1	3.02	.58
	고2	3.07	.58
	고3	3.23	.55

표 9.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검증	
우울	그룹 간	35,801	5	7.160	11.052***	고3) 중1,2,3 고1,2
	그룹 내	1432,503	2211	.648		
	총계	1468,305	2216			

###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발달적 변화

#### 3.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실시 결과 남자의 경우 성격 5요인에서 발달적 변화는 개방성(O), 성실성(C), 외향성(E)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방성(O)은  $F=12.52$ ,  $p<0.001$ 으로 나타났고, 성실성(C)는  $F=5.17$ ,  $p<0.001$ 이며, 외향성(E)  $F=2.67$ ,  $p<0.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등 2학년이 고등 1·2·3학년에 비해 개방성(O)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C)의 경우 또한 중등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외향성(E) 역시 고등 1학년이 중등 2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성격 5요인에서 발달적 변화는 개방성(O)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실성(C)은  $F=5.64$ ,  $p<0.001$ 으로, 외향성(E)은  $F=11.31$ ,  $p<0.001$ , 우호성(A)은  $F=5.84$ ,  $p<0.001$ , 신경증(N)은  $F=15.00$ ,  $p<0.001$ 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Tukey HSD,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자의 경우 성실성(C)은 중학생 때 높게 나타나고 고등 2·3학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E)의 경우 또한 중등 1·2학년이 고등 2·3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성(A)은 다른 학년들



에 비해 고등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경증(N)은 고등 3학년과 고등 1학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격 5요인의 일원배치변량분석 결과(남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 검증
O	그룹 간	22,02	5	4.40	12.52***	고1,2,3 >중2
	그룹 내	320,25	911	.35		
	총계	342,28	916			
C	그룹 간	7.63	5	1.52	5.17***	중3,고1,3 >중2
	그룹 내	268,12	909	.29		
	총계	275,75	914			
E	그룹 간	5.55	5	1.11	2.67*	고1)중2
	그룹 내	376,77	908	.41		
	총계	382,32	913			
A	그룹 간	1.47	5	.29	1.93	-
	그룹 내	138,78	912	.15		
	총계	140,25	917			
N	그룹 간	2.19	5	.44	1.79	-
	그룹 내	220,58	900	.24		
	총계	222,78	905			

\*\*\* $p < .001$ , \*\* $p < .01$ , \* $p < .05$

표 11. 성격 5요인의 일원배치변량분석 결과(여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 검증
O	그룹 간	1,64	5	.32	1.13	-
	그룹 내	372,38	1286	.29		
	총계	374,02	1291			
C	그룹 간	7.72	5	1.54	5.64***	중1,2,3 >고2,3
	그룹 내	352,26	1286	.27		
	총계	359,99	1291			
E	그룹 간	19.10	5	3.82	11.31***	중1,2) >고2,3
	그룹 내	434,80	1288	.33		
	총계	453,90	1293			
A	그룹 간	3.58	5	.71	5.84***	고1) >중1,2,3, >고2
	그룹 내	157,56	1285	.12		
	총계	161,14	1290			
N	그룹 간	17,89	5	3.58	15.00***	고3) >고1
	그룹 내	304,87	1278	.23		
	총계	322,77	1283			

\*\*\* $p < .001$ , \*\* $p < .01$ , \* $p < .05$

성격 5요인의 특성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다른 발달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림 6-10]에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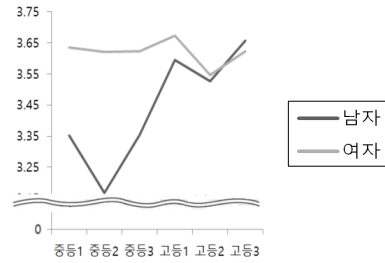


그림 6. O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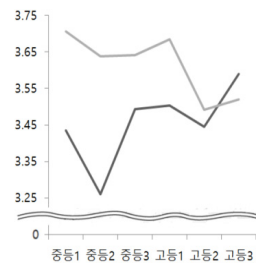


그림 7. C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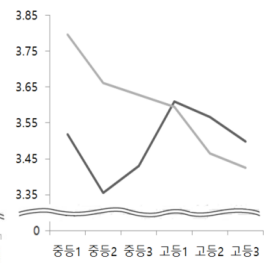


그림 8. E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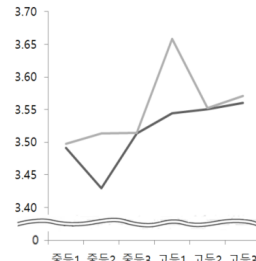


그림 9. A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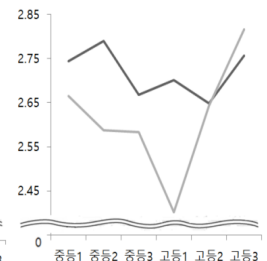


그림 10. N의 평균

### 3.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

성별과 학년에 따른 신경증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2]와 [표 13]에 제시하였다.

실시 결과 남자의 경우 신경증에서 발달적 변화는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비행요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불안은  $F=5.61, p < 0.001$ 으로 나타났고, 과잉행동은  $F=4.62, p < 0.01$ 이며, 공격성/ 비행  $F=5.67, p < 0.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요인은 중등 1-2-3학년에 비해 고등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잉행동요인은 중등 2학년이 고등 1·2·3학년에 비해 가장 높았다. 공격성/비행요인의 경우는 중등 1·2학년이 고등 1·2·3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신경증에서 발달적 변화는 신경증 요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우울은  $F=13.79, p<0.001$ 으로, 불안은  $F=13.90, p<0.001$ , 과잉행동은  $F=8.99, p<0.001$ , 공격성/비행은  $F=7.42, p<0.01$ , 충동성은  $F=12.72, p<0.001$ 로 나타났다.

표 12. 신경증 요인의 일원배치변량분석 결과(남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 검증
우울	그룹 간	5.67	5	1.13	1.65	-
	그룹 내	629.87	917	.68		
	총계	635.54	922			
불안	그룹 간	14.50	5	2.90	5.61***	고3) 중1·2·3
	그룹 내	473.21	916	.51		
	총계	487.71	921			
과잉 행동	그룹 간	10.83	5	2.16	4.62***	중2) 고1·2·3
	그룹 내	428.52	914	.46		
	총계	439.36	919			
공격성/비행	그룹 간	12.08	5	2.41	5.67***	중1·2) 고1·2·3
	그룹 내	391.07	918	.42		
	총계	403.15	923			
충동성	그룹 간	.76	5	.15	.40	-
	그룹 내	351.58	917	.38		
	총계	352.35	922			

\*\*\* $p<.001$ , \*\* $p<.01$ , \* $p<.05$

표 13. 신경증 요인의 일원배치변량분석 결과(여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사후 검증
우울	그룹 간	42.16	5	8.43	13.79***	고3) 중1·2·3, 고1
	그룹 내	786.23	1286	.61		
	총계	828.40	1291			
불안	그룹 간	36.74	5	7.34	13.90***	고3) 중1·2·3, 고1
	그룹 내	684.07	1294	.52		
	총계	720.82	1299			
과잉 행동	그룹 간	23.47	5	4.69	8.99***	중1) 고1·2·3
	그룹 내	674.24	1292	.52		
	총계	697.72	1297			
공격성/비행	그룹 간	14.26	5	2.85	7.42***	고3) 중2·3,고1
	그룹 내	498.03	1296	.38		
	총계	512.29	1301			
충동성	그룹 간	21.33	5	4.26	12.72***	중1,고3) 중2·3, 고1·2
	그룹 내	433.90	1294	.33		
	총계	455.23	1299			

\*\*\* $p<.001$ , \*\* $p<.01$ , \* $p<.05$

유의미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명확한 확인을 위해 Dunnet T3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울과 불안요인의 경우 고등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잉행동요인의 경우 중등 1학년이 고등 1·2·3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비행요인의 경우는 고등 3학년이 중등 2·3학년과 고등 1학년에 비해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충동성요인에서는 중등 1학년과 고등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자의 경우 고등 1학년에 서 신경증 요인이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신경증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학년별 발달적 변화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학년별 신경증 요인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림 11-15]에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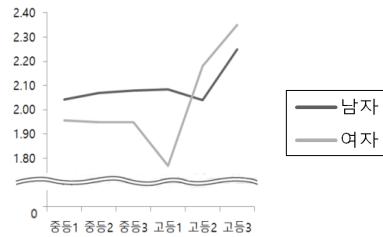


그림 11. 우울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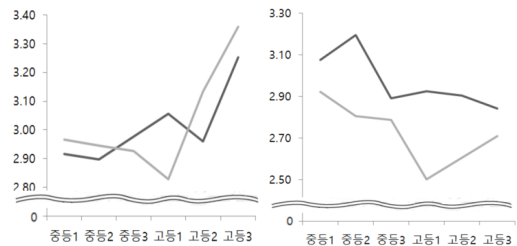


그림 12. 불안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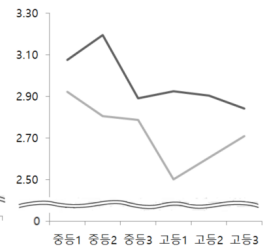


그림 13. 과잉행동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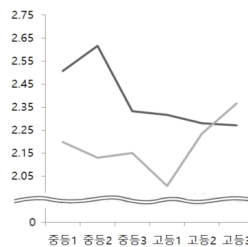


그림 14. 공격성/비행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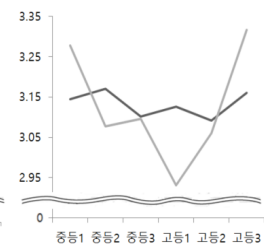


그림 15. 충동성의 평균

##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Big 5 성격요인에 따른 청소년기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격 5요인과 신경증 요인을 성별, 학년, 그리고 성별에 따른 학년별 발달적 변화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성격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격 5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요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우호성의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limstra(2009)의 연구에서 우호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19]. 그리고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가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이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남자는 반대로 정서적 안정성(신경증)이 여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7]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신경증 요인에서의 남녀차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신경증 요인과 관련된 내현화·외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음으로 신경증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신경증이 모두 높았으며 특히 우울, 과잉행동, 공격성/비행의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행동, 비행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지만[24][25], 우울과 불안에서 여자가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는 성격검사 도구의 차이, 대상, 시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자가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으며, 남자는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향성과 우호성의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성격특성의 성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가정해 보면,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성 역할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게 되며 자신의 성과 어울리는 성향들을 은연중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의 성격특성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년에 따른 성격 5요인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특성이 학년에 따라 우세하는 유형이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동문제와 관련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학년에 따라 나열하면 중등 1·2학년 때는 개방성·우호성이 낮고, 외향성·신경증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등 3학년 때부터 점차 안정적으로 이동하였다. 고등 1학년 때는 개방성과 우호성이 가장 높고 신경증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다가, 고등 2·3학년이 되면서 신경증이 높아지고, 외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학생 1·2학년에서 신경증 요인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신체적 이차 성징 발달에 의한 호르몬의 영향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창규, 채준호(1997) 연구에서 신경증 요인이 나이가 들수록 차츰 낮아지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2, 3학년에서 신경증 요인의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 불안과 진학에 대한 과도한 압박, 예민성 등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20].

또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개방성의 증가와 외향성의 하락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기의 지적특성 발달이 17-18세 경에 정점을 달한다는 발달적 특성과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김정택 등(2003)의 MBTI 성격유형의 발달 특성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향에서 내향으로 성격유형이 발달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27], 특히 성실성의 경우 진학과 입시 문제를 겪는 학년마다 뚜렷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경증 요인에서 학년차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신경증 요인에서 내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우울과 불안 요인은 고등 2학년부터 뚜렷이 올라가 입시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성격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충동성 요인은 중등 1·2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 2병'에 대한 현대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고등 3학년에서 우울, 불안 요인뿐만 아니라 공격성/비행, 충동성 요인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고등 3학년은 일상생활 적응이 어렵고, 스트레스 관리, 행동 통제, 정서 조절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성격특성에 대한 성별에 따른 학년별 발달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성별 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고등 1학년에서 성격특성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 학년 별로 성격특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자의 경우 중등 2학년에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이 낮고,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차성징에 따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활동을 즐기기보다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며 세상으로부터 고립, 분리감을 느끼게 된다. 여자보다 남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남자 중학생의 게임 중독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중등학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심리적 부적응을 더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28].

또한 여자의 경우 중학생 때 성실성과 외향성이 높으나 고등 2·3학년 때 우호성과 함께 확연히 떨어지고 신경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시기에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이차 성징을 맞이하고 적응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약해질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과 우울감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낼 것으로 볼 수 있다[29].

다음으로, 신경증 요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학년별 발달적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내현화 문제와 관련 있는 불안 요인에서 고등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외현화 문제와 관련 있는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요인은 중등 1·2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내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우울과 불안 요인 모두에서 고등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과잉행동과 충동성 요인에서 중등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신경증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울과 불안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 2학년부터 남녀 모두 우울과 불안 요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자의 우울과 불안이 남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고등학생 때 우울과 불안의 성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신경증 요인에서 중학생의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충동성 요인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높았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중등 2학년 때 과잉행동, 공격성/비행 요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주목할 만 한 점으로 여자는 고등 3학년 때 우울, 불안 요인과 더불어 공격성/비행, 충동성 요인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고등 3학년 때 내현화·외현화 행동문제를 함께 보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성격특성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의 차이와 학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에 보다 적합한 발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격특성은 초기에는 생물학적 요인인 이차성징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 후기에는 환경적 요인인 학업, 입시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증 요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내현화·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양상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추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과 학년에 따라 상이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현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어, 환경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취약해 질 수 있는 시기에 학교 차원에서 그에 따른 적합한 교육 및 상담, 치료적 개입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에서 남자 중학생들이 다소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남녀의 비율과 학년의 비율을 유사하게 표집 하고자 하였으나, 표집과정에서 남자중학생 표집이 어려워 여자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의 우울, 불안은 여자중학생이 높은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 남자중학생이 높게 나온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남자중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여자중학생에 비해 확실히 높아진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남녀 비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의 발달을 횡단적 접근을 통해 알아보았기에 개인의 고유한 성격특성의 발달에 관한 질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여 본 연구에서 더 발전하여 환경에 부적응적인 성격유형을 선별하여 종단적인 접근의 연구를 진행한다면 임상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성격장애로 진단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청소년들에게 보다 예방적인 치료적 개입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1] 민경환, *성격심리학*, 경기: 법문사, 2002.

- [2] P. T. Costa and R. R. McCrae, "Set like plaster?" Evidence for the stability of adult personality," In T. Heatherton & J. Weinberger(Eds.), *Can personality change?*, pp.21-4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 [3] Rebecca L. Shiner, "Linking Childhood Personality With Adaptation: 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Time In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2, pp.310-325, 2000.
- [4] 이춘재, 광금주,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7권, 제2호, pp.119-135, 1994.
- [5] 오숙영, *MBTI 성격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6] 김동일, 안연의, "NEO 청소년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pp.77-91, 2006.
- [7] 이경호, 송미옥,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등교 거부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2017.
- [8] 최귀숙, 임성옥, "학교청소년의 대인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게임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180-193, 2017.
- [9] Howard S. Friedman and Miriam W. Schustack, *personality: Classic theories and modern research(5th ed)*, Boston: Pearson/Allyn & Bacon, 2012.
- [10] 김동일, 홍성두, 인효연, "Big Five 성격요인에 기초한 청소년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pp.289-305, 2006.
- [11] L. R. Goldberg,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Vol.59, No.6, pp.1216-1229, 1990.
- [12] 정승청, 최은실, *성격 5요인검사 BFI 전문가용 매뉴얼*, 경기: 한국가이던스, 2015.
- [13] Renee D. Goodwin and Ian H. Gotlib,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the role of personality factors," *Psychiatry Research*, Vol.126, pp.135-142, 2004.
- [14] 김영봉, *교육심리학*, 고양: 서현사, 2007.
- [15] 정옥분, *청년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2015.
- [16] 강인숙, 김정택,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문제행동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14권, pp.85-105, 2006.
- [17] Michele Vecchino, Guido Alessandri, Claudio Barbaranelli & Gianvittorio Caprara, "Gender differences in the big five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late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3, pp.740-746, 2012.
- [18] P. T. Costa, A. Terracciano, and R. R. McCrae,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cultures: Robust and surprising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1, No.2, pp.322-331, 2001.
- [19] Theo A. Klimstra, William W. Hale III, Quinten A. W. Raaijmakers, Susan J. T. Branje, and Wim H. J. Meeus, "Maturation of Persona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6, No.4, pp.898-912, 2009.
- [20] 안창규, 채준호,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443-473, 1997.
- [21] A. L. Van den Akker, P. Prinzie, M. Deković, A. D. De Haan, J. J. Asscher, and T. Widige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extremity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Rela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5, No.6, pp.1038-1048, 2013.
- [22] L. Cytrn and D. H. Mcknew,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ing clinical expression of the depressive proces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1, No.8, pp.879-881, 1974.
- [23] J. A. Chiles, M. L. Miller, and G. B. Cox,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Vol.37, pp.1179-1184, 1980.
- [24] 심용철,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2권, 제2호, pp.24-34, 1999.
- [25] 광금주, 문은영,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학술발표 논문집*, 1993.
- [26]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한국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1권, 제1호, pp.93-114, 2012.
- [27] 김정택, 심혜숙, 신영규, 심민보, "성격유형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2단계 7년(초등학교 3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 *한국 심리유형 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24, 2003.
- [28] 최인재, *NYPI 청소년 정책 리포트: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30권, 2012.
- [29]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제 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2015.

저 자 소 개

장 은 지(Eun-Ji Jang)

정회원



- 2010년 : 가천대학교 아동학과 (가정학사)
- 2016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현재 : 동작아이존, 맑은샘심리 상담연구소 상담사

<관심분야> : 아동심리치료, 발달정신병리

최 은 실(Eun-Sil Choi)

정회원



- 1998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문학사)
- 2001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0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박사)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심리치료, 발달정신병리